

팔체질침 전문 한의사의 체질침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민재영 · 박영재 · 박재성 · 신용섭 · 박영배 · 이상철* · 김민용

경희대학교 학과간협동과정 한방인체정보의학과, *그리스도대학교 경영정보학부

[Abstract]

A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 of Constitution-Acupuncture Based on the Expert Constitution-Acupuncture Oriental Medical Doctors

Jae-Young Min, Young-Jae Park, Jae-Sung Park, Yong-Sup Shin, Young-Bae Park, Sang-Chul Lee*, Min-Yong Kim

Dept. of Human Informatics of Oriental Medicine, Interdisciplinary Programs, Kyung Hee University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Korea Christia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tain basic data about the effects of Constitution-Acupuncture (CA) based on Eight-Constitution Medicine (ECM) by the expert CA Oriental Medical Doctors.

Methods:

The resources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et survey method. 35 samples were collected. The SPSS 13.0 for windows and Answer Tree 3.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

1. The motivation that apply ECM to clinic are 'Because ECM is effective for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against disease' 48.6% and 'Because CA therapy is effective' 25.7%.
2. The advantage that CA therapy compare to the other acupuncture therapy are 'Management and prevention against disease are available by ECM theory to a person who exact constitution is confirmed' 82.9%, 'CA therapy is superior in treatment of hard symptoms to treat by the other acupuncture therapy' 80%, 'Treatment effect is good' 77.1%, 'Needle manipulation of CA is simple comparatively' 57.1%, 'It is definite whether treatment effect is good or not' 54.3% and CA therapy is superior all in diseases of twelve category.

3. When the effects of CA is good, patients expressed much 'Eyesight lightened', 'Took deep sleep at night', 'Fatigue decreased', 'Body is light', 'Feelings became refreshing' as well as 'Symptoms were improved' and also physicians confirmed as those reactions whether treatment is effective.

Conclusions:

The research suggest that CA is effective therapy in clinic, and so further study is needed for CA therapy.

Key Words: Constitution-Acupuncture, CA therapy, Eight-Constitution Medicine, ECM, Do-won Kuon

* 교신저자 : 박영재 / 소속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과학교실
TEL : 02-440-6233 / E-mail : bmpomd@paran.com

I. 서론

8체질이란 金陽(Pulmotonia), 金陰(Colonotonia), 水陽(Renotonia), 水陰(Vesicotonia), 土陽(Pancreotonia), 土陰(Gastrotonia), 木陽(Hepatonia), 木陰(Cholecystonia)體質로서, 이는 心臟, 肺臟, 脾臟, 肝臟, 腎臟, 小腸, 大腸, 胃, 膽囊, 膀胱 그리고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등 12기관을 타고난 기능적인 강약배열에 따라 8개의 구조로 분류한 완전히 독립된 8개의 개성을 말한다¹⁾. 이렇게 구분된 각 體質은 외모나 성격, 행동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달라지며^{2,3)}, 또한 疾病에 이환되는生理, 病理의기전도 다르게 되어, 각 體質에 따라 治療法과 飲食分類, 攝生法 등이 다르게 된다⁴⁾.

8체질의학은 동호 권도원 박사에 의해 1965년 10월동경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침구학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cupuncture)에서 체질침 연구(A Study of Constitution-Acupunctur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처음 발표되었다⁵⁾. 권도원박사는 1965년 발표이후 많은 임상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197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사람

을 8개의 체질로 확정하였고, 각 체질별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영양법과 8체질 감별법(맥진)등을 내용으로 한 8체질의학(Eight-Constitution Medicine)으로 체계화하였다⁴⁾.

현재 체질침 치료는 좋은 치료성과⁶⁻¹¹⁾로 인하여 빈번하게 임상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체질 치료법의 활용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메일과 8체질의학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들의 정보공유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www.onestep8.com)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웹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방법은 인터넷이 사회과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비용, 신속성, 편리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설문조사 방법이 지닌 시간적, 지역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12,13)}.

본 연구는 체질침 치료를 활용하는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접하는 체질침 치료에 대한 효과, 환자의 반응, 임상에서 느끼는 점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팔체질 치료법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체질침 치료를 활용하는 한의사 44명과 8체질 의학을 주제로 개설된 한의사들의 인터넷사이트(www.onestep8.com)에 설문참여 협조를 구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려 무작위로 설문에 참여토록 하였다.

기간은 2007년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18일간 설문을 수집하였다.

2. 설문문항

설문문항은 설문대상자의 8체질의학 임상숙련도를 알아보기 위한 4문항과 체질침만 사용하여 치료하는지 여부, 체질침 치료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및 어려운 점, 체질침 치료와 다른 침법과의 효과를 비교, 체질침 치료 후 환자의 반응 및 치료의 호전반응을 어떤 질문으로 파악하는 지 등에 관한 설문문항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3. 조사방법

본 설문은 체질침을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현재 8체질의학 전문 한의사¹⁴⁾(임상년차 5년 이상, 임상건수 50,000건 이상) 3명으로부터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설문문항을 작성했다. 구성된 설문

Table 1. Questionnaire Items

8체질의학 임상숙련도	1. 성명
	2. 임상기간(년)
	3. 임상건수(건)
	4. 자가판단맥진속련도(%)
설문 문항	1. 체질침 치료만 하는 지 여부
	1-1. 체질침 이외에 사용하는 침법 (복수선택)
	1-2. 체질침 이외에 다른 침법을 사용하는 이유 (복수선택)
	2. 체질침 사용동기 (단일선택)
	3. 다른 침법에 비해 우수하다고 느끼는 점 (복수선택)
	4~15. 각 질환군에 대한 체질침과 다른 침법의 치료효과 비교 (5단계)
	16. 체질침 치료시 어려운 점 (복수선택)
	17. 체질침 치료 후 환자 스스로 표현하는 몸의 반응
	18. 체질침 치료 후 치료자가 치료효과가 긍정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에게 질문하는 내용(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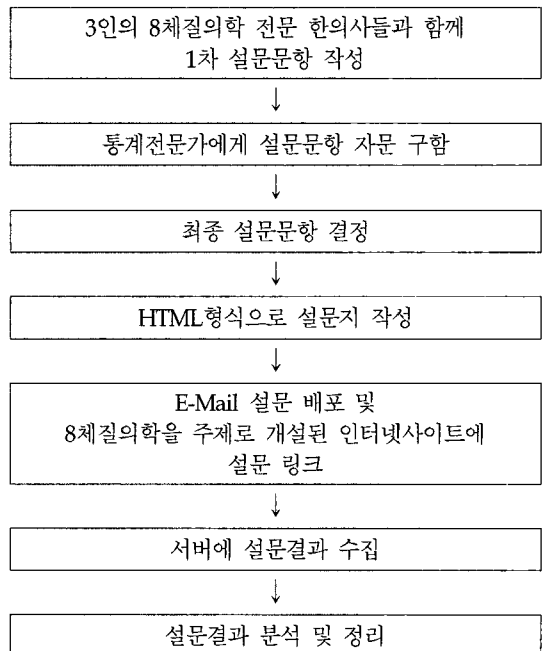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This Study

문항에 대해 다시 통계전문가에게 설문문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설문 참여자의 8체질의학 임상숙련도에 관한 4문항과 설문문항 18문항으로 총 22문항을 최종적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설문문항은 인터넷설문조사를 위하여 HTML형태, 즉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은 체질침 치료를 활용하는 한 의사 44명에게 E-Mail에 첨부하여 보낸 후 설문에 응답토록 하였고, 또한 8체질 의학을 주제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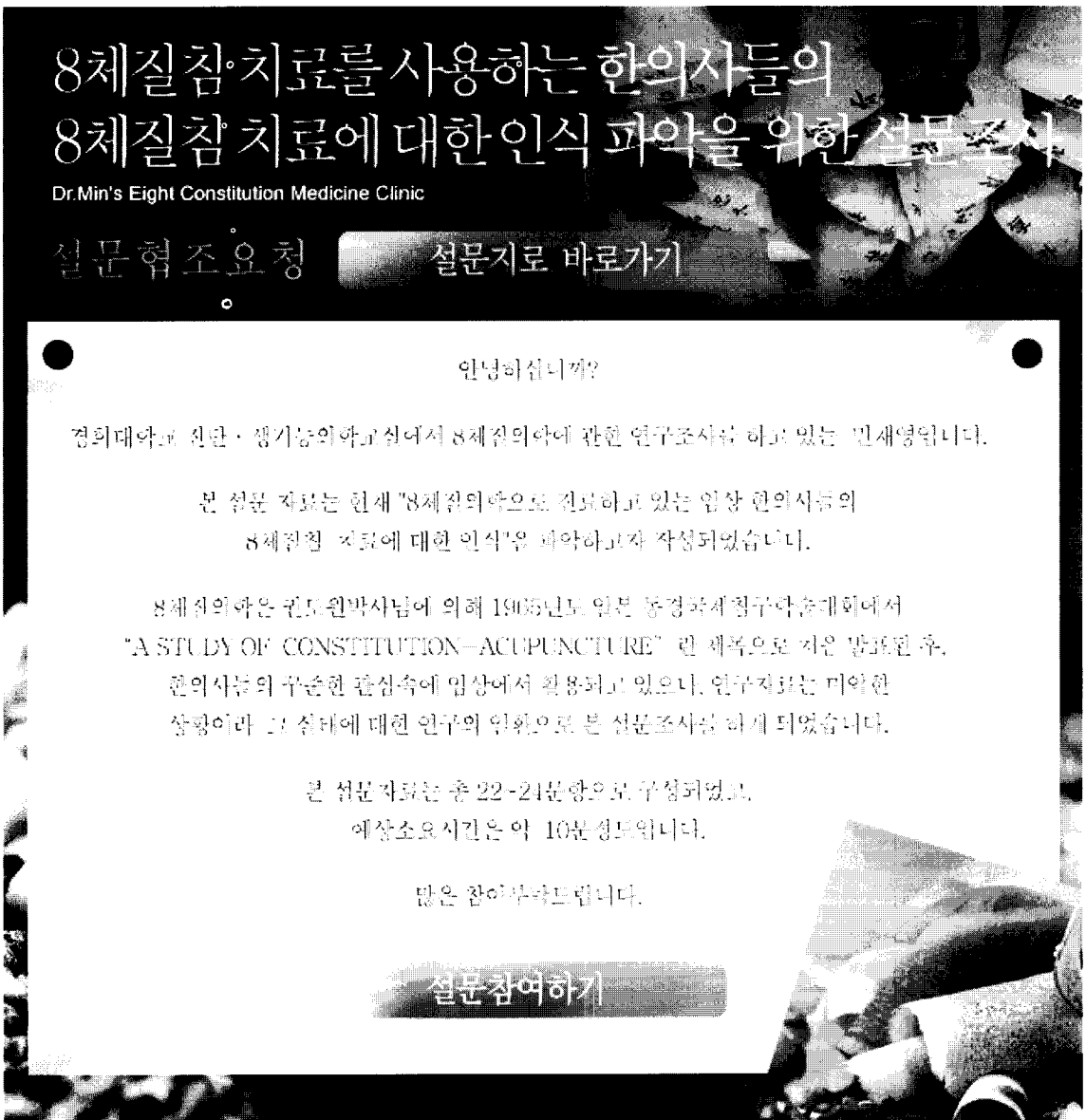


Figure 2, Contents of 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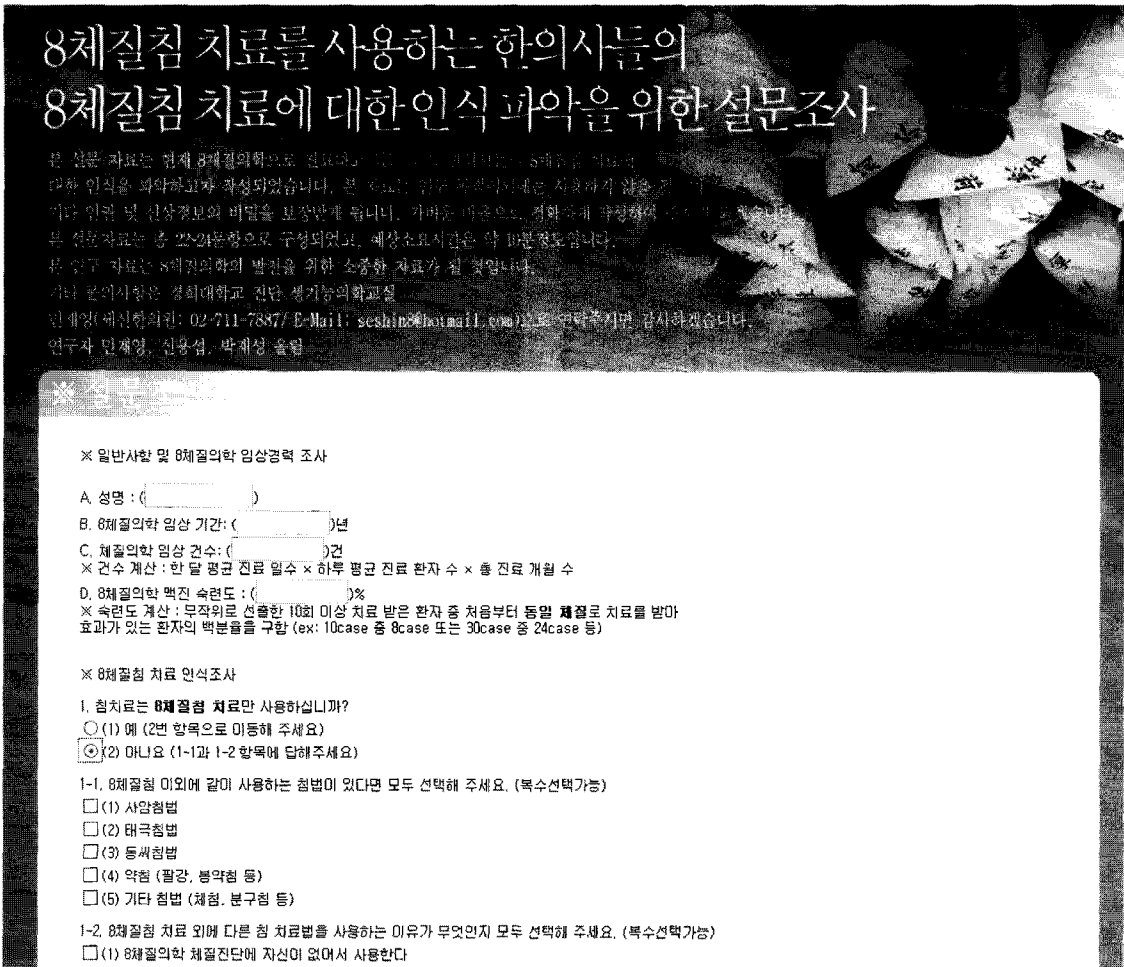


Figure 3. Capture Image of Internet Questionnaire Survey

설된 한의사들의 인터넷사이트(www.onestep8.com)의 게시판에 설문참여를 유도하는 글에 HTML로 작성된 설문지가 있는 서버의 URL을 링크하여, 조사대상자가 이에 응답하면 서버에 그 응답결과가 기록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¹²⁾(Figure 1, 2, 3).

결과의 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일반적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빈도수(Frequencies)와 평균(Mean)을 구했고, 임상건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임상경험에 따라 응답

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또한, 체질침 단독사용 그룹과 다른 침법 병행사용 그룹을 나누어 12개 질환군에 대한 체질침의 치료효과와 다른 침법의 치료효과와의 비교 평가결과에서 두 그룹은 치료효과 평가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와 임상경험에 따라 치료 후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의 규칙성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법을 AnswerTree 3.0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자의 8체질의학 임상숙련도 결과

설문참여자는 총 35명이었고, 임상경력은 평균 6.8년이었고, 임상건수의 평균은 97,811.9건이었고, 스스로 판단한 맥진의 숙련도는 평균 58.7%이었다.

임상건수별로 10만건 이상의 경험자 그룹

(Group A), 10만미만~5만건 이상자 그룹(Group B), 5만건 미만 경험자 그룹(Group C)의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하였다(Table 2).

2. 체질침 치료에 대한 설문결과

(1) 1번 문항. 침치료를 체질침만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다른 침법을 사용하지 않고 체질침 치료만 하

Table 2. Expertness of Respondents

	N	Min	Max	Mean
The whole				
임상기간(years)	35	1	12	6.8
임상건수(case)	35	100	662400	97811.9
자가판단맥진숙련도(%)	35	20	80	58.7
*Group A				
임상기간(years)	11	7	12	9.6
임상건수(case)	11	105000	662400	210218.2
자가판단맥진숙련도(%)	11	30	80	60.5
*Group B				
임상기간(years)	13	3	10	6.6
임상건수(case)	13	50000	80000	63285.8
자가판단맥진숙련도(%)	13	25	80	60.8
*Group C				
임상기간(years)	10	1	10	4.1
임상건수(cases)	10	100	45000	19830
자가판단맥진숙련도(%)	10	20	80	53

* Group A; Physicians who have clinical experience over 100,000 cases, Group B; Physicians who have clinical experience 100,000~50,000 cases, Group C; Physicians who have clinical experience below 50,000 cases

Table 3. Result of 1st Questionnaire

	The whole		Group A		Group B		Group C	
	*Fre	**Per	Fre	Per	Fre	Per	Fre	Per
(1)체질침만 사용	31	88.6	11	100	12	92.3	7	70
(2)다른 침법 병행사용	4	11.4	0	0	1	7.7	3	30

*Fre; Frequency, **Per; Percent

는 한의사가 31명(88.6%)이고, 4명(11.4%)은 다른 침법도 병행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임상경력이 적은 그룹에서 체질침 외에 다른 침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Table 3).

(2) 1-1번 문항. (복수선택) 다른 침법을 병행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병행하는 침법 종류에 대한 설문결과

4명 중 '(1)사암침법'을 병행 사용한다고 1회 선택이 있었고, '(2)태극침법', '(3)동씨침법', '(4)약침법'을 선택한 경우는 없었고, '(5)기타 침법'을 병행 사용한다고 4회의 선택이 있었다(Table 4).

(3) 1-2번 문항. (복수선택) 체질침 치료 외에 다른 침 치료를 병행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1)체질진단에 자신이 없어서 사용한다'는 경

우 1회 빈도, '(2)체질침 치료 효과가 미흡하여 사용한다' 1회 빈도, '(4)체질침 치료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회 빈도, '(5)기타' 의견으로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 체침법을 위해서 사용한다', '체질구분이 애매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5).

(4) 2번 문항. (단일선택) 8체질의학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문결과

3그룹 모두에게서 8체질의학을 하게 된 동기에서는 '(4)8체질의학이 진단, 치료 및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7명,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체질침 치료효과가 좋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9명으로 25.7%로 많았다(Table 6).

Table 4. Results of 1-1 Questionnaire

	Frequency	Percent
(1)사암침법	1	2.86
(2)태극침법	0	0
(3)동씨침법	0	0
(4)약침법	0	0
(5)기타 침법	4	11.4

Table 5. Results of 1-2 Questionnaire

	Frequency	Percent
(1)체질진단에 자신이 없어서	1	2.9
(2)체질침 치료 숙련도가 부족하여	0	0
(3)체질침 치료 효과가 미흡하여	1	2.9
(4)체질침 치료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	1	2.9
(5)기타	2	2.9

Table 6. Results of 2nd Questionnaire

	The whole		Group A		Group B		Group C	
	*Fre	**Per	Fre	Per	Fre	Per	Fre	Per
(1)체질침 효과가 좋아서	9	25.7	3	27.3	3	23.1	3	30
(2)임상적인 호기심	5	14.3	2	18.2	1	7.7	2	20
(3)지인의 권유	3	8.6	0	0	1	7.7	2	20
(4)진단, 치료, 예방에 효과적	17	48.6	5	45.4	8	61.5	3	30
(5)기타	1	2.8	1	9.1	0	0	0	0
Total	35	100	11	100	13	100	10	100

*Fre; Frequency, **Per; Percent

(5) 3번 문항. (복수선택) 체질침 치료 시 다른 침 치료법보다 우수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한 설문결과

‘(5)체질이 확인된 사람에게 8체질의학 이론에 따른 생활지도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29명, 82.9%, ‘(3)다른 침법으로 치료하기 힘든 증상의 치료에 우수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28명, 80%, ‘(1)치료 효과가 좋다’에 답한 응답자가 27명, 77.1%, ‘(4)시술이 비교적 간편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20명, 57.1%, ‘(2) 치료 후 치료의 적부(適否)에 따른 반응이 명확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19명, 54.3%의 순서로 모든 문항에 50%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룹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7).

(6) 4번~15번 문항. 각 질환군에 대한 다른 침법의 치료효과와 체질침 치료효과 비교 평가 설문결과 (5점척도; 1=효과없다, 2=효과미흡, 3=비슷, 4=약간우수, 5=매우우수)

체질침 치료 효과를 각 질환군 별로 나누어 알아보기 위한 본 설문에서, 모든 질환군에서 평균 4.2점으로 나타나 다른 침법에 비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질환군은 ‘6.소화기계 질환’으로 4.9점, 다음으로 ‘10.부인과질환’으로

4.7점, ‘8.호흡기계질환’ 4.4점, ‘5.간담도계 질환’, ‘11.안이비인후과질환’이 각각 4.3점으로 전체 질환의 평균보다 높게 나온 질환이었고, ‘6.심혈관계 질환’ 3.9점, ‘13.정신과 질환’ 3.8점, ‘14.내분비질환’ 3.7점, ‘15.기타 난치질환’ 3.6점 순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그룹에 따른 전체 평균은 Group A가 4.4점, Group B가 4.2점, Group C가 3.7점으로 8체질의학의 임상경험이 많을수록 치료효과를 우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에 따른 치료효과의 평가는 그룹별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8).

(7) 16번 문항. (복수선택) 체질침 치료를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결과

모든 그룹에서 ‘(1)체질 진단이 어렵다’를 32명, 91.4%의 높은 빈도로 체질침 치료의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6) 치료 수가가 다른 침 치료 수가보다 낮아 한의원 경영측면에서 불리하다’에 26명, 74.3%가 응답하였고, ‘(5) 8체질의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및 자료가 부족하다’에 21명 74.3%가 응답하였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그룹일 수록 ‘(4) 치료시간이 일반 한의원보다 짧아서 환자의 불만이 있다’와 ‘(5) 8체질의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및 자료

Table 7. Results of 3rd Questionnaire

	The whole		Group A		Group B		Group C	
	*Fre	**Per	Fre	Per	Fre	Per	Fre	Per
(1)치료효과 양호	27	77.1	10	90.9	11	84.6	5	50
(2)치료반응이 명확	19	54.3	7	63.6	9	69.2	3	30
(3)여러 증상치료에 용이	28	80	10	90.9	11	84.6	7	70
(4)시술이 간편	20	57.1	7	63.6	9	69.2	3	30
(5)생활지도에 용이	29	82.9	10	90.9	11	84.6	7	70
(5)기타	3	8.7	0		2	15.4	1	10

*Fre; Frequency, **Per; Percent

Table 8. Results of 4~15th Questionnaire

	The whole			Group A			Group B			Group C		
	Min	Max	Mean	Min	Max	Mean	Min	Max	Mean	Min	Max	Mean
4.근골격계질환	2	5	4.2	2	5	4.4	2	5	4.2	3	5	4
5.간담도계질환	3	5	4.4	3	5	4.5	4	5	4.6	3	5	4.1
6.심혈관계질환	3	5	3.9	3	5	4.4	3	5	3.8	3	5	3.7
7.소화기계질환	4	5	4.9	4	5	4.8	4	5	4.8	5	5	5
8.호흡기계질환	3	5	4.4	4	5	4.7	4	5	4.5	3	5	3.9
9.신경계질환	2	5	4.0	4	5	4.5	2	5	3.8	2	5	3.8
10.부인과질환	3	5	4.7	4	5	4.9	4	5	4.8	3	5	4.2
11.안이비인후과질환	2	5	4.3	4	5	4.5	4	5	4.6	3	5	4.0
12.피부과질환	2	5	4.2	4	5	4.5	3	5	4.2	2	5	3.8
13.정신과질환	2	5	3.9	3	5	4.1	3	5	4.1	3	5	3.4
14.내분비질환	2	5	3.8	3	5	3.8	2	5	3.7	3	5	3.8
15.기타 난치질환	2	5	3.7	3	5	4	2	5	3.7	3	5	3.6
Total Mean	2.5	5.0	4.2	3.4	5.0	4.4	3.1	5.0	4.2	3	5.0	3.9

Table 9. Results of 16th Questionnaire

	The whole		Group A		Group B		Group C	
	*Fre	**Per	Fre	Per	Fre	Per	Fre	Per
(1)체질진단의 어려움	32	91.4	9	81.8	13	100	9	90
(2)치료효과 부족	1	2.9	0	0	0	0	1	10
(3)치료가 어려운 질환 많음	2	5.7	1	9.1	1	7.7	0	0
(4)치료시간이 짧아 환자불만	9	25.7	1	9.1	3	23.1	5	50
(5)공부할 자료가 불충분	21	60	4	36.4	9	69.2	7	70
(6)치료수가 낮다	26	74.3	10	90.9	8	61.5	7	70
(7)기타	1	2.9	0		0	0	0	0

*Fre; Frequency, **Per; Percent

가 부족하다'에 응답한 응답자의 빈도가 높았다 (Table 9).

(8) 17번 문항. (복수선택) 치료자가 많이 듣게 되는 치료 후 유도질문 없이 환자 스스로 표현하는 몸의 반응에 대한 설문결과

17번과 18번 문항은 환자의 체질, 환자의 증상, 시술된 체질침 처방과 관계없이 치료 후 환자의 몸의 반응(17번)과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체질침 치료자가 많이 확인하는 환자 몸의 변화(18번)가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조사하였다.

17번 문항은 체질침 치료 후 환자들이 느끼는 몸의 반응을 치료자의 의도된 질문 없이 어떤 반응을 많이 표현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의도로 작성한 설문문항이다.

체질침 치료 후 환자들이 많이 표현하는 몸의 반응 중 치료자가 호전반응으로 판단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표현은 순서대로 '(1)증상이 호전

Table 10. Results of 17th Questionnaire

*	The whole				Group A				Group B				Group C			
	non	○	X	△	non	○	X	△	non	○	X	△	non	○	X	△
(1)증상호전	0	35	0	0	0	11	0	0	0	13	0	0	0	10	0	0
(2)별무변화	2	2	8	23	1	1	1	8	0	0	3	10	1	0	4	5
(3)통치이동	4	9	5	17	2	2	1	6	1	4	0	8	1	3	3	3
(4)옛 통증 재발	5	4	13	13	3	1	3	4	0	2	5	6	2	1	4	3
(5)증상악화	3	2	23	7	0	1	8	2	1	0	8	4	2	1	6	1
(6)치료 후 나쁜	2	20	0	13	0	7	0	4	0	5	0	8	2	7	0	1
(7)밤잠 숙면	2	31	0	2	0	10	0	1	0	12	0	1	2	8	0	0
(8)밤잠 설침	5	1	21	8	1	1	7	2	1	0	9	3	3	0	4	3
(9)몸살기운	1	5	19	10	1	2	5	3	0	0	7	6	0	3	6	1
(10)두통	2	2	22	9	1	0	7	3	0	1	8	4	1	1	6	2
(11)현훈	3	3	18	11	1	1	4	5	1	1	8	3	1	1	5	3
(12)눈이 밝아짐	1	32	0	2	0	10	0	1	0	12	0	1	1	9	0	0
(13)가슴이 시원	3	29	0	3	0	10	0	1	1	11	0	1	2	7	0	1
(14)뭔가 통하는 느낌	4	28	1	2	1	9	0	1	1	11	1	0	2	7	0	1
(15)피로회복	3	31	0	1	0	10	0	1	1	12	0	0	2	8	0	0
(16)기분 상쾌	3	30	0	2	0	10	0	1	1	11	0	1	2	8	0	0
(17)몸이 가벼움	1	31	1	2	0	9	1	1	0	12	0	1	1	9	0	0
(18)신중	3	2	23	7	0	1	6	4	1	0	9	3	2	1	7	0
(19)식욕증가	8	12	1	14	3	4	1	3	2	4	0	7	3	3	0	4
(20)소화양호	2	28	1	4	0	9	1	1	1	10	0	2	1	8	0	1
(21)오심	3	3	20	9	0	2	4	5	1	0	10	2	2	1	5	2
(22)대변리	4	24	1	6	1	7	1	2	1	9	0	3	2	7	0	1
(23)대변불리	5	1	20	9	1	1	7	2	1	0	8	4	3	0	4	3
(24)소변리	3	25	1	6	0	8	1	2	1	9	0	3	2	7	0	1
(25)소변불리	5	0	20	10	1	0	6	4	1	0	9	3	3	0	4	3
(26)전신소양	7	2	10	16	3	0	1	7	1	1	7	4	3	1	2	4
(27)침자리 국소소양	3	3	3	26	1	1	1	8	0	1	1	11	2	1	1	6
(28)기타 긍정	9				3				2				3			
(29)기타 부정	9				2				3				3			
(30)기타 판단곤란	5				1				2				1			

* non: 선택하지 않은 설문자수, ○: 치료 후 긍정적인 반응으로 판단하는 설문자수, X; 치료 후 부정적인 반응으로 판단하는 설문자수, △; 치료 후 환자에게서 자주 듣는 반응이나 치료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반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설문자수

됐다' 35명, 100%, '(12)눈이 밝아졌다' 32명, 91.4%, '(7)밤에 숙면을 취했다', '(15)피로가 회복되었다', '(17)몸이 가볍다' 31명, 88.6%, '(16)기분

이 상쾌해졌다' 30명, 85.7%, '(13)가슴이 시원해졌다' 29명, 82.9%, '(14)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20)소화가 잘 되었다', 28명, 80%, '(24)소변

이 편해졌다' 25명, 71.4%, '(22)대변을 잘 봤다' 24명, 68.6%, '(6)치료 직후 나른했다' 20명, 57.1%의 순서였다. 기타 의견으로 '배가 속 들어갔다', '부기가 빠졌다', '마음이 편안해 졌다', '치료 후 다음 날 좋아졌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치료 후 부정적인 반응으로 판단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표현은 순서대로 '(5)증상이 악화됐다', '(18)몸이 무거웠다' 23명, 65.7%, '(10)머리가 아팠다' 22명, 62.9%, '(8)밤에 잠을 설쳤다' 21명, 60%, '(21)속이 울렁거렸다', '(23)대변이 힘들었다', '(25)소변이 불편해졌다' 20명, 57.1%, '(9)몸살 기운이 있었다' 19명, 54.3%, '(11)어지러웠다' 18명, 51.4%의 순서였다. 기타 의견으로 '기분이 우울해 졌다', '취가 났다', '담이 걸렸다', '생리가 불규칙해 졌다', '안 아프던 곳이 아프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치료 후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표현은 '(27)침 맞은 자리가 가려웠다' 26명, 74.3%, '(2)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었다' 23명, 65.7%였다. 기타 의견으로 '처음치료는 좋았는데 두 번째 치료받고는 잘 모르겠다', '치료당일은 좋았는데, 치료 다음날 다시 아프다', '치료 목표 이외의 곳의 증상이 좋아졌을 경우'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각 그룹별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0).

(9) 18번 문항. (복수선택) 치료자가 환자에게 치료효과 파악을 위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 설문결과

18번 문항은 치료자가 치료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기 위해 확인하는 몸의 변화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한 설문문항이다.

전체 설문자의 응답에서 '(1)증상이 호전되었는가?'는 기본적으로 35명, 100% 확인하는 질문이었고, 그 외에 '(7)밤에 숙면을 취했는가?'라는 질문

을 31명, 88.6%, '(17)몸이 가벼웠는가?'라는 질문을 30명, 85.7%의 높은 빈도로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16)기분이 상쾌해졌는가?' 23명, 65.7%, '(15)피로가 회복되었는가?' 20명, 57.1%의 빈도로 많이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기타 응답으로 '아침 컨디션이 좋았는가?'를 확인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Table 11).

(10) Decision Tree를 이용한 분석

의사결정나무는 분류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분석의 정확도보다는 분석과정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만 광고인쇄물(direct mail)을 보내려고 한다고 하자. 이 때 단순히 광고인쇄물을 보낼 고객을 추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찾아내는 문제라 할 수 있다.¹⁵⁾

의사결정나무는 광고인쇄물의 응답자 분석(direct mailing), 고객들의 신용점수화(credit scoring), 의학연구(medical research), 시장분석(market analysis),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¹⁵⁾

본 연구에서는 1번 설문문항에서 체질침 치료만 하는 그룹과 다른 침법을 병행 사용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4~15번 설문문항의 12개 질환군에 대한 체질침의 치료효과와 다른 침법의 치료효과와의 비교 평가결과에서 두 그룹은 치료효과 평가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Answer Tree 3.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체질침만 사용하는 치료자 31명과 다른 침법을 병행 사용하는 치료자 4명을 목표변수(target)로 하였다. 그리고, 12개 질환군에서 체질침의 치료효과에 대

Table 11. Results of 18th Questionnaire

	The whole		Group A		Group B		Group C	
	*Fre	**Per	Fre	Per	Fre	Per	Fre	Per
(1)증상호전	35	100	11	100	13	100	10	100
(2)별무변화	13	37.1	4	36.4	6	46.2	3	30
(3)통치이동	4	11.4	1	9.1	3	23.1	0	0
(4)옛 통증 재발	4	11.4	0	0	4	30.8	0	0
(5)증상악화	16	45.7	5	45.5	7	53.8	4	40
(6)치료 후 나쁜	10	28.6	3	27.3	6	46.2	0	0
(7)밤잠 숙면	31	88.6	10	90.9	11	84.6	9	90
(8)밤잠 설침	8	22.9	3	27.3	4	30.8	1	10
(9)몸살기운	8	22.9	2	18.2	4	30.8	2	20
(10)두통	2	5.7	0	0	1	7.7	1	10
(11)현훈	4	11.4	0	0	3	23.1	1	10
(12)눈이 밝아짐	13	37.1	4	36.4	7	53.8	1	10
(13)가슴이 시원	8	22.9	2	18.2	4	30.8	1	10
(14)뭔가 통하는 느낌	9	25.7	3	27.3	2	15.4	3	30
(15)피로회복	20	57.1	6	54.5	9	69.2	4	40
(16)기분 상쾌	23	65.7	5	45.5	11	84.6	6	60
(17)몸이 가벼움	30	85.7	10	90.9	12	92.3	7	70
(18)신중	5	14.3	1	9.1	3	23.1	1	10
(19)식욕증가	3	8.6	1	9.1	1	7.7	1	10
(20)소화양호	14	40	4	36.4	5	38.5	4	40
(21)오심	3	8.6	0	0	2	15.4	1	10
(22)대변리	15	42.9	4	36.4	6	46.2	4	40
(23)대변불리	2	5.7	1	9.1	1	7.7	0	0
(24)소변리	13	37.1	4	36.4	5	38.5	3	30
(25)소변불리	2	5.7	1	9.1	1	7.7	0	0
(26)전신소양	1	2.9	0	0	1	7.7	0	0
(27)침자리 국소소양	0	0	0	0	0	0	0	0
(28)기타	2	5.8	0	0	1	7.7	1	10

*Fre; Frequency, **Per; Percent

한 전체 평균점수인 4.2를 기준으로 5점 척도에서 1=효과없다, 2=효과미흡, 3=비슷, 4=약간우수로 답한 경우 '평균이하'로 하고, 5=매우우수로 답한 경우를 '평균이상'으로 35명의 12개 질환군에 대한 설문결과 데이터를 변환 작업을 거친 후, 12개 질환별 체질침의 효과 평가를 예측변수(predictors)

로 두었다. 기타 분석조건 Table 12에 표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뿌리마디(root node)는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마디로써 전체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 4에서 Node 0이 이에 해당한다. 자식

Table 12. AnswerTree 3.0 Advanced Options

Tree Growing Criteria		
Growing Method	CHAID	
Algorithm Specifications		
Alpha for splitting	0.50	
Alpha for merging	0.00	
Chi-squared statistic	Pearson	
Allow splitting of merged criteria	Off	
Use of Bonferroni adjustment	On	
Stopping Rules		
Maximum tree depth	3	
Minimum no. of cases for parent node	4	
Minimum no. of cases for child nodes	2	
Cost		
	체질침만 사용	다른 침법 병행 사용
체질침만 사용	0.00	1.00
다른 침법 병행 사용	7.75	0.00

마디(child node)는 하나의 마디에서 분리되어 나간 2개 이상의 마디들을 의미하고, 부모마디(parent node)는 자식마디의 상위마디를 의미한다. Figure 4에서 Node 1, 2는 Node 0의 자식마디이고, node 0은 Node 1, 2의 부모마디가 된다. 각 나무줄기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마디를 끝마디(terminal node) 또는 잎(leaf)라고 한다. 의사결정나무에서 분류규칙은 끝마디의 개수만큼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부모마디로부터 자식마디들이 형성될 때, 어떤 예측변수(predictors)를 이용하여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 목표변수(target)의 분포를 가장 잘 구별해 주는지 파악하여 자식마디가 형성되는데, 목표변수의 분포를 구별하는 정도를 순수도(purity) 또는 불순도(impurity) 등 분리기준(splitting criterion)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이 때 순수도란 목표변수의 특정 범주에 해당 마디의 개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Figure 4의 Node 0은 체질침만 하는 그룹과 다른 침법을 병행하는 그룹의 비율이 각

각 88.57%와 11.43%이지만, Node 1은 각각 96.15%와 3.85%, Node 4는 100%와 0%로 부모마디에 비해서 자식마디의 순수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나무는 부모마디의 순수도에 비해서 자식마디들의 순수도가 증가하도록 자식마디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¹⁵⁾.

체질침만 사용하는 그룹은 부인과질환에서 체질침의 치료효과가 다른 침법에 비해 전체 질환의 치료효과의 평균(4.2점)이상이라고 답하고, 간담도계질환에서 평균이상이라고 답한 경우(node 4)와 부인과질환 평균이상, 간담도계질환 평균이하, 피부과질환 평균이하라고 답한 경우(node 7)와 부인과질환 평균이하, 근골격계질환 평균이상이라고 답한 경우(node 6)와 부인과질환 평균이하, 근골격계질환 평균이하, 간담도계질환 평균이상이라고 답한 경우(node 10)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었고, 반면 다른 침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그룹은 부인과질환 평균이하, 근골격계질환 평균이하, 간담도계질환 평균이하라고 답한 경우(n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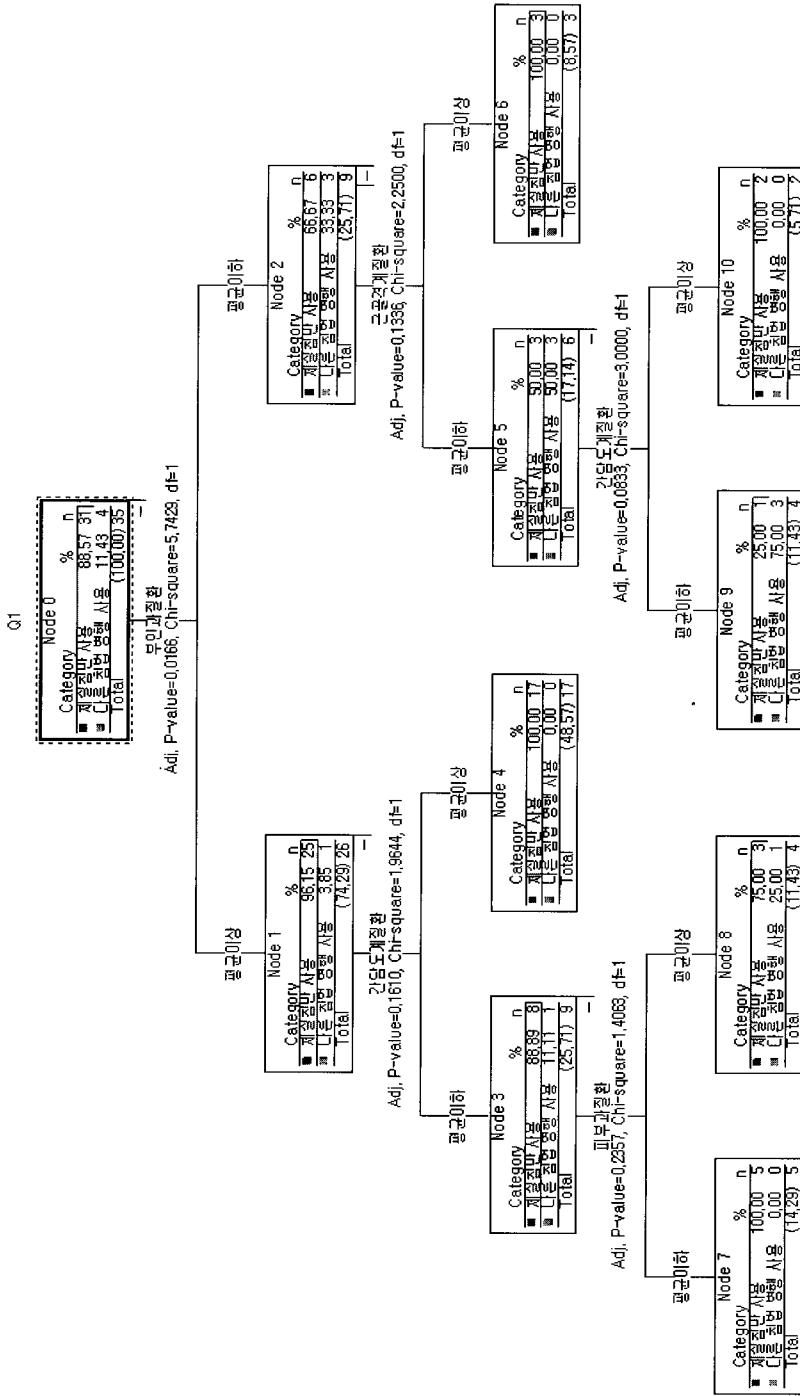


Figure 4. Decision Tree; Target – 1st Questionnaire, Predictors – 4~15th Questionnai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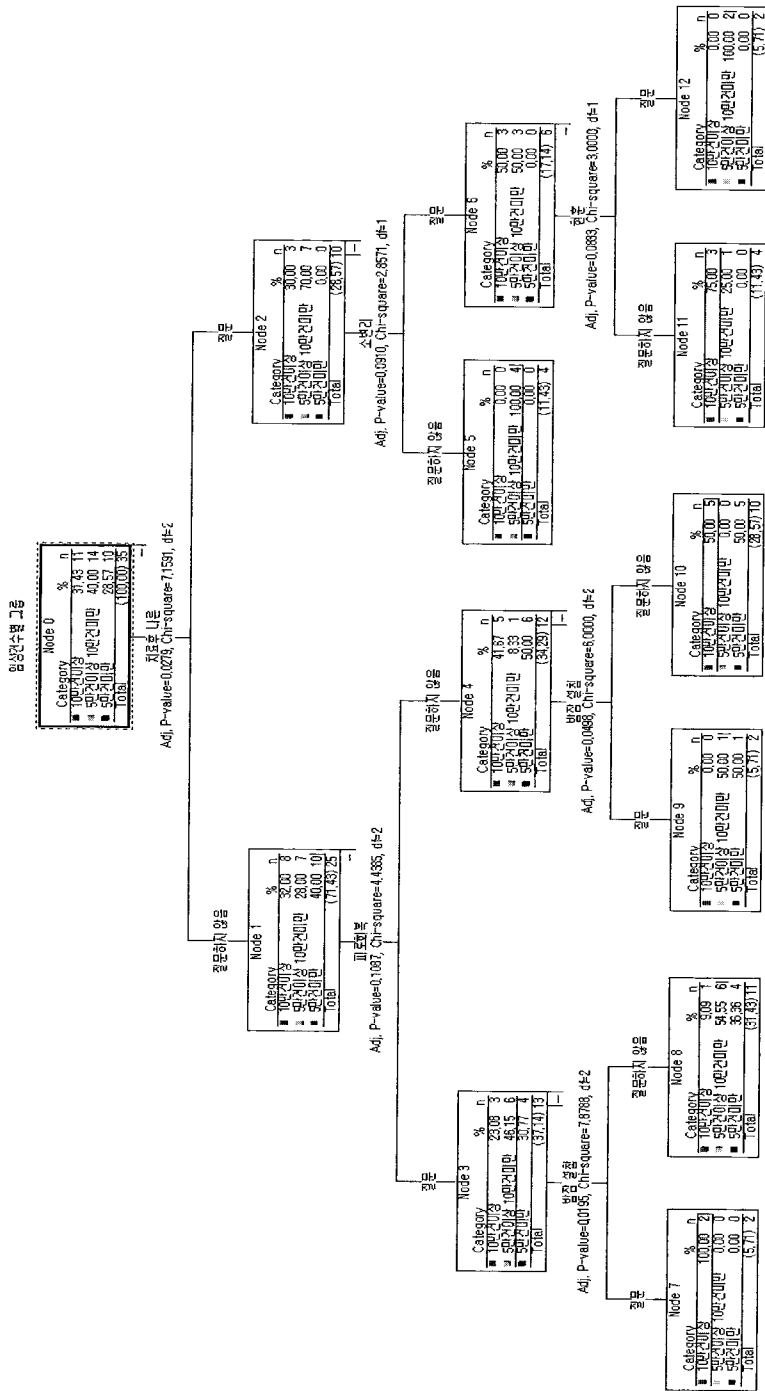


Figure 5. Decision Tree; Target – Three Group by Number of Clinical Cases, Predictors – 18th questionnaire.

9)와 부인과질환 평균이상, 간담도계질환 평균이하, 피부과질환 평균이상이라고 답한 경우(node 8)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었다(Figure 4).

또한, 18번 문항을 임상건수로 나눈 3그룹별로 유의한 질문과 경로를 밝힘으로서 단순 빈도분석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AnswerTree 3.0을 이용하여 임상건수별 3그룹을 목표변수로 하고, 각 질문에 대한 선택여부를 예측변수로 두었다. Advanced Options은 표 2와 같고, 다만, Cost는 Equal for all categories로 하였다.

Figure 5에서 치료 후 치료자가 치료효과가 긍정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많이 질문하는 질문내용으로, 임상건수 5만건 미만의 그룹(Group C)에서는 '(6)치료 직후 나른했는가?'라는 질문을 10명이 모두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 5만건이상 10만건 미만의 그룹(Group B)는 '(6)치료 직후 나른했는가?'를 질문하고, '(24)소변이 편해졌는가?'를 질문하는 규칙성을 보였다(Figure 5).

IV. 고 찰

체질침은 8체질의학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권도원에 의해 1965년 10월에 발표된 독특한 치료법이다.

8체질의학은 사람의 장부-5개의 내실장기(內實臟器-Solid organ;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신장)와 5개의 내공장기(內空臟器-Hollow organ;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의 강약의 배열이 8개의 다른 배열로 나뉘어 지며, 8개의 배열이 8개 체질의 특성으로 정의되는 것이 8체질의학의 기본원리이다.

또한, 8체질 치료는 다고난 장부 강약의 배열을 생리적인 적불균형상태로 정의하고, 장부의 균형의 편차가 더 크진 경우를 병리적인 과불균형상태로 정의하고, 과불균형의 상태를 적불균형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 치료의 방법을 체질침이라고 한다²⁾.

체질침은 장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오수혈을 새롭게 그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여 장부혈로 명명하고, 8체질의학의 병리에 따라 계산된 장부혈로만 구성된 체질침 처방에 따라 치료하는 침 치료법이다⁵⁾.

체질침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채⁷⁾의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환자의 체질침과 체침에 의한 자각적 통증 감소 비교연구에서 체질침치료가 체침치료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질침의 치료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체질침을 전문으로 사용하여 진료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체질침의 유효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최근 높아진 인터넷 사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한국인터넷 진흥원사이트 제공 인터넷통계정보 검색시스템(<http://isis.nida.or.kr>)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4,227,799명(2007년 3월 현재)이며,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은 34,120,000명으로 74.8% (2006년 12월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우편이나 전화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규모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설문지 배포 및 회수, 자료입력 등에서 우편이나 전화 설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

하는 데에 있어서 하드웨어 및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초기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¹²⁾.

본 설문조사는 조사자의 한의원 홈페이지가 구축된 웹서버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링크하여 인터넷 웹DB에 설문회신이 입력되도록 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선정은 기존에 알고 있던 체질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9명에게서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8체질의학을 주제된 개선된 인터넷사이트(www.onestep8.com)의 게시판에 설문참여를 부탁하는 글로써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6명의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설문결과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의사 메일주소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보다 많은 설문대상자의 참여가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의 확보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어려운 점이었다.

이와 같이 수집한 설문을 일반적 기술통계법을 사용하여 빈도수와 평균을 구했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에서의 의사결정분석법은 의사결정규칙을 나무 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 또는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룹을 구별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의 과정 및 결과가 나무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분류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들(예를 들면, 신경망(neural networks),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5,16)}.

본 조사에서 총 설문응답자 중 체질침 치료만 하는 한의사가 31명(88.6%)이고, 4명(11.4%)은 다른 침법도 병행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병행 사용 침법은 '사암침법'의 응답이 1회, '기타 침법'이 4

회의 빈도였다. 병행 사용하는 이유로는 '체질진단에 자신이 없어서 사용한다', '체질침 치료 효과가 미흡하여 사용한다', '체질침 치료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각 1회의 빈도였고, '(5)기타' 의견으로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 체침법을 위해서 사용한다', '체질구분이 애매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8체질의학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8체질의학이 진단, 치료 및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7명, 48.6%으로 가장 많았고, '체질침 치료효과가 좋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9명으로 25.7%로 많았다.

체질침 치료를 포함하는 8체질의학은 다른 치료법의 병행 없이 독립적인 치료체계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우수하다고 생각이 된다.

체질침 치료 시 다른 침 치료법보다 우수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체질이 확인된 사람에게 8체질의학 이론에 따른 생활지도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29명, 82.9%, '다른 침법으로 치료하기 힘든 증상의 치료에 우수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28명, 80%, '치료 효과가 좋다'에 답한 응답자가 27명, 77.1%, '시술이 비교적 간편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20명, 57.1%, '치료 후 치료의 적부(適否)에 따른 반응이 명확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19명, 54.3%였다. 12개의 질환군에 대한 체질침 치료효과와 다른 침법의 치료효과의 비교 평가 설문(5점척도; 1=효과 없다, 2=효과미흡, 3=비슷, 4=약간우수, 5=매우우수)에서는 체질침 치료가 모든 질환군에서 평균 4.2점으로 나타나 다른 침법에 비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소화기계 질환'으로 4.9점, '부인과질환'으로 4.7점, '호흡기계 질환' 4.4점, '간담도계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이 각각 4.3점으로 전체 질환의 평균보다 높게 나온 질환군이었고, '심혈관계 질환' 3.9점, '정신과

질환' 3.8점, '내분비질환' 3.7점, '기타 난치질환' 3.6점 순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임상경험 건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전체 평균은 임상경험이 많은 순서대로 4.4점, 4.2점, 3.7점으로 나타나 8체질의학의 임상경험이 많을수록 치료효과를 우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자가 많이 듣게(聞診) 되는 치료 후 환자 스스로 표현하는 몸의 반응에 대해 치료자가 호전반응으로 판단한다고 응답한 표현은 '증상이 호전됐다' 35명, 100%, '눈이 밝아졌다' 32명, 91.4%, '밤에 숙면을 취했다', '피로가 회복되었다', '몸이 가벼워졌다' 31명, 88.6%, '기분이 상쾌해졌다' 30명, 85.7%, '가슴이 시원해 졌다' 29명, 82.9%, '뭉개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소화가 잘 되었다', 28명, 80%, '소변이 편해졌다' 25명, 71.4%, '대변을 잘 봤다' 24명, 68.6%, '치료 직후 나른했다' 20명, 57.1%의 순서였다. 기타 의견으로 '배가 쑥 들어갔다', '부기가 빠졌다', '마음이 편안해 졌다', '치료 후 다음 날 좋아졌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치료 후 부정적인 반응으로 판단한다고 응답한 표현은 순서대로 '증상이 악화됐다', '몸이 무거웠다' 23명, 65.7%, '머리가 아팠다' 22명, 62.9%, '밤에 잠을 설쳤다' 21명, 60%, '속이 울렁거렸다', '대변이 힘들었다', '소변이 불편해졌다' 20명, 57.1%, '몸살기운이 있었다' 19명, 54.3%, '어지러웠다' 18명, 51.4%의 순서였다. 기타 의견으로 '기분이 우울해졌다', '취가 났다', '담이 걸렸다', '생리가 불규칙해 졌다', '안 아프던 곳이 아프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치료 후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표현은 '침 맞은 자리가 가려웠다' 26명, 74.3%,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었다' 23명, 65.7%였다. 기타 의견으로 '처음치료는 좋았는데 두 번째 치료받고는 잘 모르겠다', '치료당일은 좋았는데, 치료 다음날 다시 아프다', '치료 목표 이외의 곳의 증상이 좋아졌을

경우' 등의 의견이 있었다.

복수선택으로 질문한 치료자가 환자에게 치료 효과 파악을 위해 많이 질문(問診)하는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 설문에는 '증상이 호전되었는가?'는 35명, 100% 확인하는 질문이었고, 그 외에 '밤에 숙면을 취했는가?'라는 질문을 31명, 88.6%, '몸이 가벼워졌는가?'라는 질문을 30명, 85.7%의 높은 빈도로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기분이 상쾌해졌는가?' 23명, 65.7%, '피로가 회복되었는가?' 20명, 57.1%의 빈도로 많이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기타 응답으로 '아침 컨디션이 좋았는가?'를 확인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상의 환자 반응으로 볼 때 체질침 치료가 효과적일 경우에는 수면, 피로감, 소화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 후 이런 변화들을 치료자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체질침 치료를 사용하는 한의사들 대상으로 체질침 치료만 사용하는지 여부와 다른 침법을 병행 사용하면 어떤 종류의 침법을 병행 사용하는지, 병행 사용의 이유를 알고자 했고, 8체질의학을 임상에 활용하게 된 동기, 체질침 치료가 다른 침법 치료와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와 12개 질환군 별로 나누어 치료효과를 비교했고, 체질침 치료시 어려운 점을 조사했다. 또한, 체질침 치료후 환자로 부터는 어떤 몸의 반응들을 들을 수 있는지(問診)와 치료자는 체질침 치료가 긍정적인지 확인하는 것(問診)을 어떤 점들인지 알아보았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35명의 체질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로부터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질침 치료를 포함하는 8체질의학은 독립적으로 임상에 적용하여 체질이 확인된 사람에게 8체질의학 이론에 따라 각 체질별로 생활관리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체질침의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2. 체질침의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침법에 비해 12개 질환군에 모두 우수(5점 척도에서 평균 4.2점)한 걸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소화기계 질환, 부인과 질환, 호흡기 질환에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체질침 치료를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체질진단의 어려움을 91.4%의 빈도로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체질침 치료가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체질진단이 체질침 치료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임상에서 체질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질진단은 8체질의학의 고유의 맥진을 통하여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진단의 객관화가 8체질의학의 보편화에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경험이 많은 그룹일 수록 체질침 치료효과를 우수하게 인식했다. 이는 체질진단과 더불어 체질침의 치료효과는 임상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수한 치료효과에 비해 현행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적절치 못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4. 체질침 치료 후 환자 스스로 표현하는 몸의 반응과 치료자가 환자에게 치료의 호전여부를 알기 위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체질침 치료는 주된 증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 '밤에 숙면을 취했다', '피로가 회복되었다', '몸이 가볍다', '기분이 상쾌해졌다', '소변이 편했다',

'대변을 잘 봤다' 등의 수면상태, 피로감의 개선, 대소변의 변화를 체질침 치료 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인체의 변화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5. 의사결정나무분석법 사용하여 체질침만 사용하는 그룹과 다른 침법을 병행 사용하는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개 질병군에 대한 치료효과 인식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내고자한 분석에서는 부인과질환의 치료에 대한 인식이 두 그룹을 나뉘는 가장 큰 요소로 체질침만 하는 그룹은 부인과질환의 치료효과를 평균이상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른 침법을 병행하는 그룹의 경우 평균 이하로 치료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임상경험 건수별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치료 후 치료경과의 호전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패턴의 규칙성을 찾아내고자한 분석에서는 '치료 직후 나른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임상건수 5만건 이하의 그룹에서는 하지 않았고, 5만건 이상 10만건 미만의 그룹은 '치료 직후 나른했는가?'의 질문을 하고, '소변이 편해졌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다른 그룹과 차별된 규칙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결정나무분석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본수의 한계로 인하여 이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임상에서 체질침의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식되어지고 있기에, 체질침의 치료효과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권도원. 8체질을 압시다. 빛과 소금: 서울, 두란

- 노, 1994(8): 116-118.
2. 권도원. 8체질의학론 개요. IMKS Occasional Papers No.2.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43-71.
 3. 권도원. 체질과 직업. 빛과 소금: 서울, 두란노, 1996(3), 162-163.
 4. 권도원. 體質鍼 治療에 關한 研究(國譯文). 明大 論文集. 1974; 7: 607-625.
 5. Dowon Kuon. A Study Of Constitution-Acupunc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Acupuncture & Moxibustion : Tokyo, Jap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65(10), 149-167.
 6. 김영옥, 이경민, 김성웅, 이세연, 서정철, 정태영, 임성철, 한상원. Pain Disability Index와 Visual Analogue Scale을 이용한 경향통 대한 팔체질침의효과. 대한침구학회지. 2003,2; 20(1): 202-208.
 7. 채상진, 김남옥, 박영철, 손성세. 요추간판탈출 증환자의 체질침과 체침에 의한 자각적 통증 감소 비교. 대한침구학회지. 2001,6; 18(3): 48-55.
 8. 이성훈, 김난용, 이동수. 특발성으로 지속되는 딸꾹질 환자 1례에 대한 팔체질침을 사용한 증례 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1,3; 22(1): 95-100.
 9. 김성욱, 장경진, 강영화, 서정철, 윤현민, 손인석. 팔체질침을 이용한 반월판 관절경부분절제술 환자의 치험례. 동의한의연구(5). 2001(12): 67-75.
 10. 이형호, 김진규 등. 메니에르 증후군 의증의 현환환자 1례에 대한 팔체질침을 이용한 증례 보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0; 16(5): 1079-1083.
 11. 신용섭, 박영재, 오환섭, 이상철, 박영배. 8 체질침 자극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원학회지. 2005,12; 9(2): 94-109.
 12. 안문석, 박성진, 맹보학.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방법. 정부학연구. 2002; 8(1): 274-308.
 13. 명승환, 최영훈. 인터넷조사방법론의 가능성과 쟁점:행정학회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2002; 36(2): 333-351.
 14. 신용섭, 박영재, 박영배, 오환섭. 8체질맥진 숙련도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원학회지. 2006,7; 10(1): 78-97.
 15. 최종후, 한상태, 강현철, 김은석, 김미경, 이성건. AnswerTree 3.0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예측 및 활용. SPSS아카데미. 2003, 17-31.
 16. 박은경, 이영섭, 박성식.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144-155.

Appendix-1

설문지

본 설문 자료는 현재 8체질의학으로 진료하고 있는 임상 한의사들의 8체질침 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타 인권 및 신상정보의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설문자료는 총 22~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예상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입니다.

본 연구 자료는 8체질의학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진단·생기능의학교실 민재영(세신한의원; 02-711-7887/ E-Mail; se-shin8@hot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민재영, 신용섭, 박재성 올림

※ 일반사항 및 8체질의학 임상경력 조사

A. 성명 : ()

B. 8체질의학 임상 기간: ()년

C. 체질의학 임상 건수: ()건

※ 건수 계산 : 한 달 평균 진료 일수 ×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 × 총 진료 개월 수

D. 8체질의학 맥진 숙련도 : ()%

※ 숙련도 계산 : 무작위로 선출한 10회 이상 치료 받은 환자 중 처음부터 동일 체질로 치료를 받아 효과가 있는 환자의 백분율을 구함 (ex: 10case 중 8case 또는 30case 중 24case 등)

※ 8체질침 치료 인식조사

1. 침치료는 8체질침 치료만 사용하십니까?

- (1) 예 (2번 항목으로 이동해 주세요)
 (2) 아니요 (1-1과 1-2 항목에 답해주세요)

1-1. 8체질침 이외에 같이 사용하는 침법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가능)

- (1) 사암침법
 (2) 태극침법
 (3) 동씨침법
 (4) 약침 (팔강, 봉약침 등)

(5) 기타 침법 (체침, 분구침 등)

1-2. 8체질침 치료 외에 다른 침 치료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가능)

- (1) 8체질의학 체질진단에 자신이 없어서 사용한다
- (2) 8체질침 치료 숙련도가 부족하여 사용한다
- (3) 8체질침 치료 효과가 미흡하여 사용한다
- (4) 8체질침 치료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5) 기타 (_____) 자 / 100자

2. 8체질의학을 임상에서 사용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8체질침 치료효과가 좋아서
- (2) 임상적인 호기심 때문에
- (3) 지인의 권유로
- (4) 8체질의학이 진단, 치료 및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라서

(5) 기타 (_____) 자 / 100자

3. 8체질침 치료시 다른 침 치료법보다 우수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가능)

- (1) 치료 효과가 좋다
- (2) 치료 후 치료의 적부(適否)에 따른 반응이 명확하다
- (3) 다른 침법으로 치료하기 힘든 증상의 치료에 우수하다
- (4) 시술이 비교적 간편하다
- (5) 체질 확인된 사람에게 8체질의학 이론에 따른 생활지도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

(6) 기타 (_____) 자 / 100자

※ 다음의 각 질환군에 대해 다른 침법의 치료효과와 8체질침 치료효과를 비교 평가해 주십시오.
(4~15)

항 목	효과 없다	효과 미흡	비슷	약간 우수	매우 우수
4. 근골격계질환: 요통·경항통, 견비통(오십견), 엄좌질환, 퇴행성관절염, 디스크질환, 류마티스관절염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간담도계질환: 간염, 지방간, 만성피로, 알코올성질환, 황달, 담낭염, 담석증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심혈관계질환: 부정맥, 협심증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위, 대장 소화기질환: 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위하수, 위무력, 소화불량, 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장질환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폐, 호흡기질환: 감기, 기침, 가래, 폐렴,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신경계질환: 안면마비, 삼차신경통, 두통, 현훈, 중풍후유증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부인과질환: 생리통, 냉대하, 생리불순, 불임, 자궁부정출혈, 갱년기장애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안이비인후과질환: 비염, 축농증, 결막염, 누낭염, 맥립종, 중이염, 인후염, 후두염, 편도선염, 매핵기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피부과질환: 두드러기, 소양,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알러지성 피부염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정신과질환: 우울증, 불면증, 불안신경증, 공황장애, 환청, 환시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4. 내분비질환: 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기타 난치병: 자가면역질환(루프스,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진행성 근위축병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8체질침 치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가능)

- (1) 체질 진단이 어렵다
- (2) 다른 침 치료법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
- (3) 다른 침 치료법에 비하여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많다
- (4) 치료시간이 일반 한의원보다 짧아서 환자의 불만이 있다
- (5) 8체질의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및 자료가 부족하다
- (6) 치료 수가가 다른 침 치료 수가보다 낮아 한의원 경영측면에서 불리하다
- (7) 기타 () 자 / 100자

※ 다음 두 문항은 8체질침 치료 후(치료직후부터 다음날까지) 환자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問診) 반응(17)과 치료자가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問診)하는 내용(18)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17. 치료 후 치료자의 의도된 유도질문 없이 환자가 스스로 표현하는 몸의 반응들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가능).

단, 환자의 반응이 없는 항목은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 반응 중에서 치료자가 치료 후 긍정적인 반응으로 판단하는 것은 'O', 부정적인 반응으로 판단하는 것은 'X', 자주 듣게 되나 효과의 긍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반응은 '△'에 체크해 주세요.)

치료 후 환자가 스스로 표현하는 몸의 반응	O	X	△
(1) 증상이 호진됐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아픈 곳이 이동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증상이 악화됐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치료 직후 나른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밤에 숙면을 취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밤에 잠을 설쳤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몸살기운이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머리가 아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어지러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눈이 밝아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가슴이 시원해 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피로가 회복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기분이 상쾌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몸이 가벼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몸이 무거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식욕이 증가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소화가 잘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속이 울렁거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대변을 잘 봤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대변이 힘들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소변이 편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소변이 불편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몸이 전체적으로 가려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침 맞은 자리가 가려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기타 긍정적인 반응으로 판단되는 표현

_____ 자 / 100자

(29) 기타 부정적인 반응으로 판단되는 표현

() 자 / 100자

(30) 기타 자주 듣게 되나 긍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표현

() 자 / 100자

18. 치료 후 치료자가 치료효과가 긍정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가능)

- (1) 증상이 호전되었는가?
- (2)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었는가?
- (3) 아픈 곳이 이동했는가?
- (4)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팠는가?
- (5) 증상이 악화됐었는가?
- (6) 치료 직후 나른했는가?
- (7) 밤에 숙면을 취했는가?
- (8) 밤에 잠을 설쳤는가?
- (9) 몸살기운이 있었는가?
- (10) 머리가 아팠는가?
- (11) 어지러웠는가?
- (12) 눈이 밝아졌는가?
- (13) 가슴이 시원해 졌는가?
- (14)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는가?
- (15) 피로가 회복되었는가?
- (16) 기분이 상쾌해졌는가?
- (17) 몸이 가벼웠는가?
- (18) 몸이 무거웠는가?
- (19) 식욕이 증가했는가?
- (20) 소화가 잘 되었는가?
- (21) 속이 울렁거렸는가?
- (22) 대변을 잘 봤는가?
- (23) 대변이 힘들었는가?
- (24) 소변이 편해졌는가?
- (25) 소변이 불편해졌는가?
- (26) 몸이 가려웠는가?
- (27) 침 맞은 자리가 가려웠는가?

(28) 기타 () 자 / 100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